

거양해운

벌크선 2척 신조발주

벌크전용선사인 거양해운(대표 박정원)은 최근 현대삼호중공업에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을 신조발주하기로 했다.

거양해운은 6월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조선 확보 및 마켓 운영을 통한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벌크선 2척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2척의 총선가는 1,617억원(1억7,440만달러)이며, 인도는 2010년 7월과 2010년 12월이다.

(거양해운 신조내용) △취득 목적물 규모 : Capesize급 벌크선 △취득가액 : 1617억 2112만원(1억 7440만달러) △거래상대방 : 현대삼호중공업 △취득목적 : 신조선 확보 및 마켓 운영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자본조달방법 : 유보자금 및 외부자금 조달 △취득방법 : 직접취득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7년 6월7일 △취득예정일 : 1차선-2010년 7월, 2차선-2010년 12월 △선박의 특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임

고려해운

박정석 대표이사 사장 선임

고려해운은 지난 5월 3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존의 최영후 대표이사 체제에서 새로 선임된 박정석 대표이사 사장 체제(사진)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고려해운은 경영층의 점증적인 세대교체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고려해운 박정석 사장

리한 연장선상에서 전임 최영후 사장은 대표이사는 사임하였으나 부회장으로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단행된 인사를 통해 고려해운 경영층이 더욱 젊어졌으며 앞으로 관련 회사와의 협조관계 강화 등을 통해 종합물류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고려해운은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임원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인사는 6월7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확정됐다.

(임원인사 및 임원진 업무분장) △최영후 전임 대표이사 : 부회장 △박정석 대표이사 사장 △박기진 부사장 : 고려훼리(주) 부사장 △이완섭 전무 : 컨테이너 영업부, 컨테이너 업무부 총괄 △신용화 전무 : 기획관리부, 재경부, 전산부 총괄 △홍양희 이사 : 기획관리부, 재경부 담당 △백관선 이사 : 운항관리부, 해사부 담당 △정구석 부장 : 이사대우 승진 및 컨테이너 영업부 담당

대림H&L

1만3,000DWT 케미컬탱커 진수식

대림H&L(대표 기의석)은 6월4일 21세기조선에서 발주한 1만3,000DWT급 케미컬 탱커진수식을 개최했다.

대림에이치앤엘은 지난해 8월 21세기조선에 1만3000DWT급 케미컬탱커 1척을 2,335만 달러에 2007년 10월15일 인도받는 조건으로 신조 발주한 바 있다.

이번에 진수된 선박은 'DL ASTER'호로 명명됐으며, 앞으로 의장작업을 거쳐 10월중으로 대

림H&L에 인도될 예정이다.

대림H&L은 'DL ASTER'호외에도 동형선 1척을 지난해 9월 21세기조선에 발주한 바 있다. 이 선박은 오는 2008년 1월 15일 인도될 예정이다. 대림H&L은 탱커운송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탱커선대를 확장해 오고 있다.

대한해운

대규모 선박투자계획 공시

대한해운(대표 이진방 회장, www.korealines.co.kr)은 5월23일 벌크선 10척 및 유조선 1척, 총11척 약 6천3백억원의 대규모 선박투자를 공시했다.

벌크선은 케이프사이즈 4척과 핸드맥스사이즈 6척으로 모두 신조선이며 유조선은 원유운반선 중고선이다. 신조선의 인수시기는 2009년부터 2010년 이며 중고선은 금년 6월중에 인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의 대규모 선박투자는 최근 건화물선업황 호조가 계속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회사 실적의 호전됨에 따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경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한해운의 현재 사선대 규모는 LNG선 6척을

포함하여 총 28척이며 건조중인 선박 13척을 포함하여 금번 11척의 추가 선박투자로 총 52척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대한해운은 케이프사이즈선박을 중심으로 한 대형선 위주의 사선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해운은 해운업이 본격적인 호황을 누리기 이전인 지난 2002년부터 꾸준한 선박투자를 해왔다. 대한해운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대규모 선박투자 KLC Vision 2010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이며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를 통한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향후에도 꾸준한 선박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해운은 2006년, 'KLC Vision 2010'을 선포하고 2010년까지 전용선/건화물선/유조선 영업부문에서 매출 2조원과 영업이익 2천억원을 달성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에너지·자원 전문선사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주)봉신

자원개발관련 정관변경

(주)봉신(대표 정인현)은 6월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를 포함한 국내외 자원의 탐사, 채취와 그 개발사업 및 동제품의 수입, 저장, 수송,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을 가결했다.

봉신은 이번 정관변경 이유에 대해 신규사업 검토에 따른 사업 목적 추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지난 4월 30일 에콰도르에 유전 2개광구의 탐사 및 개발, 생산계획과 관련 권리를 인수하는 계열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코카캐리어스

당진항 자동차 전용부두 착공식



유코카캐리어스(대표 칼요한 빌헬름 해그만)는 5월23일 평택 당진항에서 자동차 전용부두 착공식을 가졌다. 이번엔 착공에 들어가는 평택 당진항 12번 선석은 안벽길이 290m, 5만톤급 규모로 총 공사비 540억원을 들여 2010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유코카캐리어스는 지난해 11번 선석 자동차 전용부두 착공에 이어 평택 당진항에서 2개의 자동차 전용부두를 운영하게 됐다. 11번 선석은 2008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택 당진항은 현재 2개 선석을 자동차 전용부두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71만 7,127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오는 2010년 12번 선석이 완공되면 평택 당진항은 6개 자동차 전용부두에서 3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유코카캐리어스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해운 회사인 WALLENIUS LINES AB, WILH. WILHELMSSEN ASA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출자해 2002년 12월에 설립한 회사로 Wilhelmsen와 Wallenius가 각각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나머지 2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금상선

한국-일본해연안 서비스 개설

장금상선(대표 정태순)은 6월부터 한국-일본해 연안 서비스에 자사선박의 배선을 개시했다. 210TEU급 풀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하여, 부산-니가타·나오에쓰·츠루가의 3항을 묶는 정요일 위크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기항지는 부산(화)-니가타(목)-나오에쓰(금)-츠루가(토)-부산(월) 순이다.

일본측 3개항의 기항 터미널(터미널 오퍼레이터)은 니가타가 히가시코서부두 컨테이너 터미널(후지운수), 나오에쓰가 동쪽 부두 4호선석(나오에쓰 해륙운송), 츠루가가 카와사키 지구 C선석(츠루가 해륙운수)이다. 현지 대리점은 니가타가 니가타 토요부두, 나오에쓰가 나오에쓰 씨서비스, 츠루가가 츠루가 해륙운수이다.

C&동남아해운

임직원 단합대회



C&동남아해운(대표이사 유해기)이 지난 6월 9일 청계산 등반을 통한 전 임직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의 단결력 강화와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 된 이날 행사에는 C&동남아해운의 유해기 대표 이사를 비롯해 국내외 지점장들을 포함 전 임직 원이 참여했으며, 청계산의 윈터골을 시작으로 산 정상인 매봉까지 올라 올해 경영 목표달성 결 의를 다졌다

STX팬오션

상하이 자회사 투자확대

STX팬오션(대표 이종철) 이사회는 단독 투자 자회사 STX Pan Ocean(shanghai) Co., Ltd.에 대한 투자를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늘 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추가 투자는 STX팬오션 상하이의 자본 기반을 강화하고 운영 자본에 필요한 자금을 조 달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가 투자 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원되 며, 2007년 회계 연도 순유형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STX팬오션은 최근 STX조선에 Product tanker(PC) 2척을 발주했다고 발표했다. 납기는 2009년 10월과 12월이며, 선가는 척당 2,500만 달러선이다.

창명해운

벌크선 4척 신조추진

지난해 하반기 선박펀드를 통해 케이프사이즈 중고 벌크선 1척을 도입한바 있는 창명해운(대표 이경재)이 선박펀드를 통해 5만7,000톤급 벌크 선 4척을 신조한다. 또한 16만 9883톤 중고벌크 선도 도입한다.

창명해운은 세계로선박금융의 '바다로 4호, 5 호, 6호, 7호, 8호'를 통해 선박을 도입 및 신조 하기로 했다.

바다로 4호는 지난 5월30일 해양수산부의 인 가를 얻었으며, 선령 8년의 중고선이 오는 7월초 에 창명해운에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크기는 16 만9,883톤의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이며, 선가는 8,100만달러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 말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바다로 5호-8호는 5만7,000톤급 핸디막스아 이즈 벌크선을 신조하는 것으로 중국조선업체인 ZHEJIANG ZHENGHE사를 통해 건조하기로 되어있다.

선가는 척당 3,550만달러로, 90%는 기관투자 자들이 투자하고 10%는 창명해운이 부담하기로 했다.

신조선은 바다로 5호의 경우 2009년 6월로 인 도될 예정이며, 바다로 6호는 2009년 9월에, 바 다로 7호는 2009년 12월, 그리고 바다로 8호는 2010년 3월에 인도된다.

천경해운

부산-울산-연운항 서비스

인증종합물류기업인 천경해운(대표 김지수)이 근 해항로 컨테이너 운송의 경쟁력 향상 및 대하주 서비스 제고를 위해 6월20일부터 중국 연운항 기 항 서비스를 개시한다.

천경해운은 지난 6월6일부터 단독 배선으로 부 산-청도항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 20일 부 산 출항분부터 연운항을 추가 기항함으로써 부산 (수)-울산(수)-연운항(금)-청도(토) 순으로 운항 한다. 동 노선은 주 1항차로 배선으로 운영된다.



천경해운은 이번 청도 및 연운항 단독 배선을 통해 북중국 4개항만에 모두 자사 선박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특히 연운항에 배선함으로써 TCR의 기점인 연운항에 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중국 감소성 및 내륙 지방으로의 물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항로에는 천경해운 자사선인 1995년 건조된 컨테이너선박인 '스카이 블루(Sky Blue)' 호가 투입된다. 스카이블루호는 342TEU의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

팬스타라인닷컴

오사카지사로부터 감사패 받아



팬스타라인닷컴(대표 김현겸)이 오사카에서의 관광객 증대에 크게 공헌한 공로를 인정, 최근 오사카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팬스타라인닷컴 서울 본사를 직접 방문한 카지모토 노리히코(Kajimoto norihiki) 지사는 일본에서의 호텔 및 관광버스 예약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여행객을 유치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명하면서 김현겸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팬스타라인닷컴 김현겸 회장은 올

해는 선박의 추가 투입으로 연 2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승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사카 터미널 확충 등 오사카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2002년 4월 부산 오사카 항로에 카페리 '팬스타드림호'를 취항한 이후 화물과 여객부분에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며, 올해 4월 동항로에 '팬스타씨니호'를 추가 투입해 데일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진해운

해외지역 전문가 공개선발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 www.hanjin.com)이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해운 시장 개척을 위해 '2007년 해외 지역 전문가'를 공개 선발 파견한다.

지난 94년부터 국내 해운 업계 최초로 해외 지역 전문가를 파견하기 시작한 한진해운은 현재까지 전세계 40개국에 모두 100여명을 파견, 글로벌 해운 인재 양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사내공모를 통해 모두 5명의 대상자들이 선발되었으며, 8월부터 순차적으로 베트남 하노이(Hanoi), 자메이카 킹스톤(Kingston), 루마니아 콘스탄자(Constanța), 터키 메르신(Mersin), 모로코 탕헤르(Tangier) 등 5개 지역으로 출발하게 된다.

하노이는 베트남의 정치 중심지이자 제 2의 경제도시로, 급속한 산업단지 확대와 경제 발전 기대로 영업망 확대와 신규 고객 유치 모색이 필요하며, 킹스톤은 카리브해 지역의 환적 물량과 동서남북 항로의 연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향후



그 역할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콘스탄자는 흑해를 통해 루마니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최근 문호개방에 따른 해외 기업 진출 확대와 해상 물동량 증가로 신규 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며, 메르신은 터키의 남부 항구 도시로, 터키를 비롯한 동지중해 지역의 시장 진출 및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모로코의 탕헤르 역시 틈새 시장(Niche Market)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환적항으로서의 개발 가치도 조사될 예정이다.

선발 대상자들은 앞으로 6개월간 현지 언어를 습득하는 한편, 생활 문화와 풍습, 상관습 등을 익히고, 수출입 동향과 물류 현황, 신규 서비스 개설 및 영업망 확대와 물류시설 구축 가능성 등 다각도의 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루마니아 콘스탄자 파견 대상자인 조아라 대리는, '지원서 준비를 위해 밤을 새느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스프레소 더블 샷을 마셔봤다'고 그간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주어진 시간 안에 부지런히 발로 뛰고 몸소 체험하며 생생한 지역전문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진해운은 과거 중국 지역 전문가들의 폭넓은 활동을 통해 최대 해운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시

장 선점의 중요한 밑거름을 마련했던 만큼, 이번 지역 전문가 파견을 통해 신규 해운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보 획득과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현대상선

글로벌 현장경영 가속화

현대상선(www.hmm21.com) 노정익 사장이 아시아와 유럽, 미주 등 해외 주요지역을 직접 돌며 영업전략 수립 등 영업 전반을 진두지휘 하는 '글로벌 현장 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

노정익 사장은 6월12일, 13일(한국시간) 양일간 미주지역본부에 위치한 미국 델러스에서 주재원을 비롯한 현지직원, 본사의 미주 담당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지역 영업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현대상선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영업 전략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새로 개설한 '아시아-미주 동안간 2개 항로 등 신규항로의 영업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노 사장은 또 이번 미국 방문기간 중 현대상선의 미국 내 컨테이너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회사 BNSF와 현대상선 전용 터미널이 있는 미국 서부 롱비치 항만청 관계자를 만나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노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월과 5월 각각 아시아 및 유럽지역 전략회의에도 직접 참석하는 등 상반기 내내 해외 현장을 점검하는 강행군을 해왔다.

현대상선의 대륙별 영업전략회의는 통상적으로 6~9월에 열렸으나 올해는 상반기에 모두 조



기 개최했다.

이같은 조기개회는 올들어 6,800TEU급 3척, 4,700TEU급 2척 등 신규 선박이 대거 투입되고 신규항로 개설, 해외 영업조직 강화 등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현대상선 측의 설명이다.

현대상선 측은 이와 관련 “지난 해 부진했던 컨테이너선 해운시황이 올해 초부터 개선 조짐을 보이는 등 시장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노정익 사장이 대륙별 전략회의의 조기 개최를 지시했다”며, CEO가 직접 해외현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과 영업전략 수립을 놓고 격의없이 토의하는 등 솔선수범함으로써 해외 현지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경영실적 또한 호전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에 따라 지난 해 컨테이너 수송량이 216만TEU이었으나 올해는 이보다 약 12% 증가한 240만 TEU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 사장은 지난 5월말에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선주협회 포럼에 참석하여 해외 경영자들과의 상호 정보교류와 경영자로서의 유대관계 증진에 주력하는 등 외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노 사장은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사

최고경영자들의 모임인 박스클럽(Box Club) 회의, 미국 선급협회(ABS) 회의 등 잇따라 국제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보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흥아해운 한진해운과 인니서비스

흥아해운(대표 김태균 /www.heung-a.co.kr)은 한진해운(대표 박정원 / www.hanjin.com)과 6월 중순부터 인도네시아 서비스 노선을 전격 개편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NIS(North China Indonesia Service)로 명명된 이번 노선은 한진해운과 흥아해운이 새로운 공동 운항 형태로 1,200TEU급 컨테이너선 4척을 투입했다.

특히, 이번 신규항로는 인천, 평택항을 기항지에 포함함으로써 유럽발 경인지역 서비스를 특화하고 동 지역 화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천진과 청도항에서 동남아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지역의 해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사는 앞으로도 시장상황과 화물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노선의 지속적인 개발을 적극 모색하는 등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흥아해운은 지난 6월2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보육원인 성심원을 방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성심원은 흥아해운이 매년 청소년 대상 사회

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하고 있는 곳으로,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50명의 고아들이 10여명 수녀들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흥아해운의 직원들은 뜨거운 햇살에도 아랑곳 않고 제초작업과 주위환경정리를 하며 나눔의 기쁨을 즐겼다.

흥아해운은 해마다 청소년, 정신지체장애우,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방제관리자 교육과정 실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이용우)은 6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조합 인천연수실에서 조합직원 및 외부직원 23명(조합직원 19명, 조합원사 4명)을 대상으로 방제관리자과정을 실시했다.

9명의 사내강사 및 2명의 사외강사 지도로 실시하는 이번 방제관리자과정은 긴급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유출유 변화와 영향 및 산정평가, 해안방제, 언론대응, 지휘통신 및 정보, 현장소각 및 기타방제기법, 보상청구, 증빙자료 수집과 문서관리, 국가방제계획 및 국가방제정책, 국내법규, 도상훈련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과정은 방제지휘 및 감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해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시 효율적으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하는데 필요한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오염사고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방제조치에 대응하는 방제관리자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문방제교육 방제관리자과정은 4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실시되는 과정으로, 올 10월

에도 한차례 더 실시될 계획이다

한국해운조합 직제변경 및 인사이동

한국해운조합(이사장 김성수)은 6월12일 공제사업실 내 운영팀을 폐지하는 등의 직제변경과 함께 업무분장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공제사업실 내 운영팀을 폐지하고 안전지원본부 내 안전제도팀과 안전지도팀을 안전지원팀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은 재무팀에서 경영지원1팀으로 △터미널 관리 및 전산매표에 관한 사항은 운영팀에서 경영지원2팀으로 △유류사업계획 및 운영은 운영팀에서 공제개발팀으로 △유류구입·수송·공급에 관한 사항은 운영팀에서 공제사업팀으로 각각 업무를 이관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6월 11일자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기획홍보팀장 장현석(2급→1급)을 △마산지부장 현일혁(2급→1급)을 △포항지부장 김형록(2급→1급)을 △목포지부 운항관리실장 김주성(운항2급→운항1급)

(전보) △실장 : 경영지원실장 가재경, 감사혁신실장 김재환 △지부장 : 인천지부장 문한영, 여수지부장 정현태, 제주지부장 심양진, 군산지부장 이세철, 완도지부장 유장욱, 울산지부장 양기모 △팀장 : 기획홍보팀장 장현석, 경영지원1팀장 이경호, 경영지원2팀장 윤용문, 재무팀장 김성일, 공제개발팀장 김창진, 보상팀장 신현철, 부산지부 공제팀장 최종진, 인천지부 관리팀장 임석빈, 인천지부 업무팀장 박용형, 목포지부 관리팀장 박중열, 목포지부 업무팀장 김정성